

延世医療院의 환경개선 디자인

—환경미화 中心으로—



이 호 영

〈연세의료원 환경미화위원장·연세의대 정신과 교수〉

병원디자인은 환자 정서에 기여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정서가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증명됐다. 그러나 실제 병원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기능면에는 세심한 관심을 모으나, 환경의 디자인으로 환자들의 정서나 행동을 치료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보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병원은 설립자의 철학과 취지 및 여러가지 이념적 배경으로 특색이 있고 또 병원환경이 주는 정서적 분위기는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특유한 인상을 준다. 일반 시민들의 대화속에서 어떤 병원의 기능적 또는 미적(美的)인 환경의 인상으로 병원을 평가하는 소리를 듣는다. 따라서 병원의 환경적 요소는 환자의 정서적 정서적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미 건립된지 많은 세월이 갔고 또 건립당시 디자인의 기술수준이 낮은 관계도 있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최대한의 병상을 만든다는 압력 때문에 환경을 디자인 한다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다. 또 이미 낡은 기틀에 여기 저기 증축도 하다보면 환경을 재정리 또는 디자인화 한다는 계획은 여러가지 난점이 많아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면에서 볼 때 금번 연세의료원이 시도한 환경개선의 디자인화는 경영자들의 용감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환경개선의 난점들

첫째 요즘은 병원들이 겪는 경제적 여건때문에 경영자들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집념이 강해 이같은 화려한(?) 환경개선에 관심을 두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금액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해서 어떤 이윤이 생길 수 있느냐는 의문이 병원 실무자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서있지 않다는 것이 첫 난점이라 하겠다. 병원이 여지껏 잘 지내왔고 환자가 많이 오는데 이같은 디자인화란 필요 없다는 견해이다.

둘째로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려면 장소싸움에 직원들의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있고, 비좁은 복도의

구석도 학생 휴게실이다, 교수연구실이다 하고 쪼개다 보니 병원이 칸막이로 세포 분열하는 식으로 분화(分化)되어 이 주어진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할 신축성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의 정서적인 면이나 치료적인 분위기로 그들의 마음의 안정이나 평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환경조건이란 병원환경의 요소로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밀집되어있는 실정이다.

셋째로는 병원이 갖추어야 할 장비, 특히 화재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나 냉방과 온방장치, 소방시설, 비상구, 불구자들이 쓰는 레일, 환자보호를 위한 칸막이 등이 있다보니 환경의 미적 외모는 생각할 여지도 없고, 또 병원을 규칙대로 우선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엄청난데 거기다가 환경미화를 위한 디자인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현재 존재하는 낡은 건물과 오늘날까지 고치고 증축하고 해서 복잡해 질대로 복잡해진 건물들을 상대로 환경미화를 위한 디자인을 시도한다는 것이 기술적 면에서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연세의료원이 환경개선을 모색한데는 다음의 목적의식이 뚜렷이 있었기 때문이다.

① 병원환경에서 전통적으로 풍기는 병원냄새를 최소화시켜 병원이란 상(像)이 주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없애 본다. 그래서 환자들이 좀더 낙관적인 치료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시도해 본다.

② 환자들은 고도로 기술화된 병원안에서 너무나 혼잡해서 실종된다. 우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그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주는 지남력(指南力)을 부여해 보자.

③ 연세의료원의 치료철학을 반영하는 어떤 환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병원의 특수성으로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치료 분위기, 의사나 간호원의 접근, 병원의 효율성 등으로 환자의 치료적 반응과 협조적인 행동을 불러 일으켜 본다.

④ 한번 연세의료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무언가 안정된 분위기를 느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도록 환경을 개선해 본다.

병원환경 색채 균일(기본색의 선택)

무엇보다도 환자들에게 친근감과 안정감을 주려면 주위의 색체가 안정감을 돋구는 색채라야 하며 몇가지 잘 배합 할 수 있는 색을 선택해서 그 색만 가지고 환경을 조성하여 어디를 가나 눈익고 변화없는 균일성을 유지하여 스트레스로 피로한 환자들의 시각(視覺)에 필요없는 자극을 주지 않도록 통일하였다. 연세의료원은 어디를 가나 기본색으로 단장되어 있으며 그 색들은 주황색, 주홍색, 청색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조 및 조화되는 색들이 대비되어 균일하게 별도로 쓸수있게 되었다.

이 색상들은 이미 색채심리학(色彩心理學)에서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는 색들로 인정된 것이고 이 색들의 배합이 조화될 수 있어 미적인 상관성이 잘 맺어져 있다. 또 이 색의 선정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채택되었다.

또 특정한 심볼을 디자인해서 이 색들을 배경으로 표지함으로써 연세의료원의 특이성을 보이고 서비스 정신을 상징하는 심볼을 눈에 뜨이도록 종합안내판에 게시하도록 계획하였다.

SIGN SYSTEM의 디자인

주어진 조건에서 우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병원 표지계통이다. 병원이 자꾸 발전하면서 부가시설된 특수검사실이나 시설 등을 표시하는 안내가 수없이 난립해 있는 현 실정에서 표지의 체계화는 불가피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 표지체계는 전문가의 병원내 환자의 동태와 병원일체에 대한 기능분석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결론하에 라미환경예술연구원에 동태파악을 의뢰하였다. 하루 근무중 시간차에 따르는 환자들의 움직임을 계산 및 분석하여 주로 환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향지침에 의뢰하는가도 관찰하였다. 이와같은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여러가지 표지판 디자인의 설정이 고안되었다.

1. 소재표지판

병원 내외의 실표지판으로 병원, 의과대학, 부가

시설 별로 우선 색깔을 구분하고 화장실, 공중전화, 금연 등의 부대시설 소재 표지판을 국제심볼로 표지한다. 병원내 각과의 심볼을과의 협조를 얻어 장안하고 접수창구, 방문표지판을 통일하여 이 과심볼을 사용한다. 외래 각방 출입문에 붙이는 의사명과 의사 소재 알림판을 통일한다.

2. 유도표지판

환자 유동상황을 분석한 동태를 토대로 각과와 부서 및 기관을 유도하기 위한 표지판으로 천정 부착용과 벽면 부착용 그리고 기둥을 이용하여 적절한 장소에 표지한다. 계단표시 및 각종 안내도 벽면부착으로 표지하며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안내는 알기 쉬운 심볼로 표지한다.

3. 알림표지판

옥외 병원종합안내, 외래종합안내 및 원무종합안내를 설치하며 원내외의 알림, 주의사항은 물론 외래 종합안내에는 접수방법 기타 안내사항을 명시한다.

원무종합 안내판에는 입퇴원 안내 등 집무상 필요한 절차들을 명시한다. 종합안내 게시판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와 방향을 찾기 위해 머뭇거리는 장소에 설치한다.

기능향상을 위한 디자인

병원각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부서중 방사선과, 검사실, 원무과 및 약제실은 환자들이 원내 어느 곳에서나 찾을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표지한다.

우선 이 서비스부서의 벽 일부를 특수한 색채로 칠하고 외래 전반에 걸쳐 이 과를 찾아 갈 수 있는 줄을 그어 안내한다. 이 줄은과의 벽에 칠한 색과 같이하여, 환자가 예를 들어 내과에서 진찰을 마친후 검사실로 가는경우 간호원이 내과 벽에 그려진 녹색의 선을 따라가라고 지시하면 환자가 녹색선을 따라 쉽게 검사실에 갈 수 있도록 한다.

응급실은 적색으로 표시하여 원내외에서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한다. 또 여러가지로 중복된 표지

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찾는 곳을 쉽게 지시할 수 있게끔 색상과 심볼 등으로 특색을 부여한다. 환자들이 몰려서 혼잡을 이루는 장소에 의자 배치와 부수 시설을 재정비해서 환자들이 노는 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며 공중전화의 배치를 정리하여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원외의 표지판에는 의과대학, 병원의 안내표지를 색으로 분리하여 모든 대학기관은 청색, 병원시설은 오렌지색으로 분리 명시하였다.

또 병원 내외의 시설 및 기구가 앞으로 추가 또는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모든 표지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신축성있는 디자인으로 만들고 표지판의 부착부위도 임시장소에서 시험적으로 설치하여 그 기능의 효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영구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

환경개선 디자인의 문제점

금번 연세의료원 환경개선 디자인의 첫단계로 표지판과 약간의 기능적 개선만을 시도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 역시 경제적인 여건이 이같은 개선을 시도하는데 무리가 가는 점이 많아 표지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감하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너무 모험적인 디자인은 피할 수 밖에 없었고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다.

예를 들면 각과 심볼의 필요성, 또는 심볼의 적합성 등은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또 개개인의 취향이 다른 관계로 오는 의견차이에서 어느 정도의 공통성과 타당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검사실을 임상병리과로 하느냐, 검사실로 쓰느냐 또는 임상검사실로 사용하느냐 등의 사소한 문자의 차이에도 함축된 의의가 클수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았다. 또 시험기간 동안 임시 표지판을 병원 곳곳에 부착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신설요구안내표지가 들어와 외래가 표지로 압도 될 것같은 우려도 있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디자인된 여러 표지판의 신설이 과연 목적하였던 환경개선으로 환자들의 편의와 안정감에 도움이 되는 실효가 나타나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